

*성함 : 조OO

*합격한 시험 : 2019년 국가직 세무직

1. 시험 지원 동기

어렸을 적부터 공무원을 직업으로 갖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침 대학교 이중전공을 정해야 할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 참에 행정학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하여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접목시켜 전문성을 키울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세무직을 지원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사실 공부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에 맞춰 해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남은 어떻게 한다, 누구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나에게 최적의 공부법이라고 믿으며 했습니다. 필수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간이나 공부량을 정해 놓고 했고, 선택과목은 이틀에 나눠 하루는 사회, 하루는 행정학을 공부 했습니다.

국어 : 처음 문법을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고, 공부를 해도해도 자꾸 잊어버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4달 동안에는 김철민 선생님의 이론 강의를 들으며 복습에 집중을 하려 했고, 무조건 4달 안에 기본 틀을 잡은 후에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며 반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암기를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기 때문에 그 뒤로는 수월했고, 헛갈리는 부분이나 생소한 것들은 따로 제 노트에 적어 놓으며 계속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어휘, 한자는 매일매일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 할당량을 정해놓고 아침에 30분 정도 눈으로 익혔고, 독해는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몇 분이 걸리든 틀린 문제는 답을 스스로 찾고 넘어 가며 공부했습니다.

영어 : 국어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문법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국어 문법과 비슷하게 첫 4달 동안은 오동훈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문법 기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문제를 풀거나 복습을 할 때 헛갈리는 부분은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며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반복 또 반복을 하다 보니 문법 문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묻는지 어느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은 오동훈 선생님 말씀처럼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을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는 매일 문제수를 정해놓고 빠르게 읽고 답을 찾는 연습을 했고, 어휘는 3355단어장만 공부 기간에 10~15번은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휘가 영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는 어휘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사 : 다른 사람들은 한국사가 효자과목이다 뭐다 말을 하는데, 저는 한국사 때문에 공부 초반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양도 광범위할뿐더러 뭔가 계속 공부를 하

면서 머리속에 내용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집중력이 별로 좋지 않아 멍하니 책만 보고 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를 빠른 기간 내에 점수를 일정하게 잘 맞췄다는 생각은 년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한지 8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면 답이 어느정도 보이기 시작했고, 점수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외우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다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암기과목은 반복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틀린 문제에 체크를 해 놓고 다시 반복해서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체크하며 풀었던 것은 사회, 행정학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사회 : 사실 경제파트는 대학교 때 공부를 해놓은 상태여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파트는 자꾸 내용을 잊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에 비해 공부 비중을 덜 쫓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어서 자주 반복하여 용어나 암기해야하는 숫자를 익히며 암기를 했습니다. 행정학과 번갈아가며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단원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봤고, 한 단원을 끝내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며 암기했던 내용을 적용시켰습니다. 경제는 암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했습니다.

행정학 : 처음 행정학을 접했을 때 용어가 생소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행정학은 용어와 친해지는 것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큰 틀을 잡으며 말 그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 어느 단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암기를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 단원이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내가 공부한 것들을 적용시켰습니다. 행정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같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종로스파르타 장점

가장 좋았던 점은 매일 아침에 모의고사를 볼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점수가 좋게 나온 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몰랐던 부분을 시험 전에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자습실도 쾌적해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합격을 위해 공부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집중이 안되고 하기 싫어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조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힘이 빠지고 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웨이트를 하며 삶에 활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짧은 시간에 승부수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자기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 면접시험 준비 방법

면접 스테디를 구해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5분 발표 모의 면접, 상황형/경험형 기술하는 연습을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노트에 사용할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금방 익숙해지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그 방법이 크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6.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첫 번째로 묵묵히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힘을 주셨던 가족들에게, 두 번째로는 주말마다 연락하면 아무 말 없이 나와서 하소연 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놀고 싶고, 자고 싶은 욕구를 참으며 꾸준히 앉아 있었던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치고 외롭고 우울하고 힘듭니다.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합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저런 걸림돌을 유연하게 잘 넘어가느냐 마느냐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자기 전에 드라마를 한 편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다음 날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주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자기 자신의 수험생활이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